

謹賀
新年

설명절 가정예배순서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 1:2)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양제일교회
Anyang First Presbyterian Church



설 명 절 가 정 예 배 순 서

(개 역 개 정 성 경 과 새 찬 송 가 를 사 용 합 니 다 .)

신앙고백 -----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 다 같 이

- 1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 2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 3절.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 4절.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기 도 ----- 가족대표

성경봉독 -- 시편 128편 1-4절(구약 899면) --- 다 같 이

-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 2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 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 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찬 송 --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 다 같 이

- 1절.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 2절.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기도문 ----- 다 같 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눔의 시간 ----- 다 같 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어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을 찾아 나뉘봅시다.
예배를 마친 후 식사 또는 다과를 함께 나누며 교제합니다.

[예배의 진행]

1. 예배 시작 전

- 1) 설 명절 가정예배는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 2) 예배의 자리를 정돈 후, 가족 모두가 가장을 중심으로 둘러 앉습니다.
- 3) 새해를 맞아 결단하는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 4)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이가 있더라도 함께 참여하도록 독려 후 축복해주세요.
- 5) 예배를 마친 후에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고 준비된 음식을 먹고 나눕니다.

2. 예배를 인도할 때

- 1) 예배 인도 및 말씀선포는 가족 중 가장 또는 연장자가 담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기도와 성경봉독자를 따로 정하셔서 함께 참여해도 좋습니다.

설 명절은 가족이 함께 모여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과 그 가정에 주어지는 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은 이미 복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일상의 복을 말합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땀과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누리게 하시고, 평범한 하루의 노동 속에서 만족과 감사의 열매를 주십니다. 큰 성공이 아니어도, 먹고 사는 삶 자체가 은혜임을 알게 하십니다.

3절에서는 가정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오래 자라며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단번에 완성된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시간이 지나며 자라고 열매 맺는 공동체로 빚어 가십니다. 서로 인내하고 기다릴 때, 가정은 점점 풍성해 집니다.

마지막 4절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가정의 복은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새해를 맞는 오늘 우리 가정의 소원이 있다면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서로를 축복하는 가정.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더하십니다. 이 설 명절,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 되고, 새해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기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